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ND I DARKEN

가제 : 짙은 어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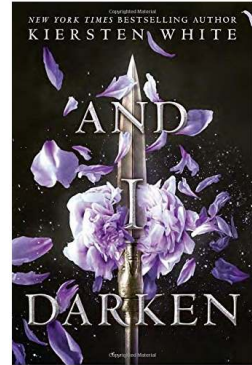
저자 : Kiersten White

출판사: Delacorte Press.

발행일: 2016년 6월 28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드라큘라>의 모델이 된 루마니아 귀족이 여자였다면? 그 삶에서 모티브를 얻은 3부작 역사소설

아일랜드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1897년에 발표한 고딕 소설 『드라큘라』는 15세기, 현재의 루마니아에 해당하는 왈라키아 공국의 귀족이던 블라드 3세가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진다. 극도로 잔인해서 죄인이나 포로를 긴 꼬챙이에 꿰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아 ‘가시공작 블러드’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블라드 3세는 드러쿨레스티라는 가문 출신으로, 살아있을 때 ‘드러쿨레아’로 불렸다고 한다. 흡혈귀의 대명사인 드라큘라의 모델이지만 루마니아에서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위인으로 존경 받는 그 인물이 만약 여성이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해외 22개국에 출간된 『Paranormalcy』 3부작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커스텐 화이트가 새로 시작한 3부작 역사 소설은 바로 그 흥미로운 전제에서 시작된다. 어린 시절 어쩔 수 없이 오스만 제국에 인질로 보내진 블라드 3세와 동생, 지독히도 잔인한 통치방식을 택한 가시공작 블러드의 생애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주인공을 여자로 바꾸고 적국에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삼각관계와 동생과의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라다와 라두, 두 남매는 15세기 왈라키아 공국의 공주와 왕자로 태어났다. 왈라키아의 왕은 오스만 제국의 압력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위태로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급기야 통치권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왕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직 어린 두 남매를 술탄에게 인질로 보내기로 결단을 내린다.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 오스만 왕실에서 자라게 된 두 남매는 그 때부터 인생이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한다. 사실 라다와 라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라다는 못생긴 외모에 포악하고 힘 쓰는 일을 좋아해서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늘 불만이였다. 유난히 강인하고 두려움이 없는 딸아이를 보면서 무척이나 흡족해하던 아버지 라다의 그런 성격이 자리잡는 데 큰 몫을 했다. 왈라키아를 하찮게 보는 오스만 제국에서 원치 않게 살면서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된 라다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다 찾아서 누리고 속으로는 언젠가 복수하고 말리라 칼을 갈았다.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성격과 태도를 길러야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대로 살아가며, 언제든 이 적국을 물리치고

왈라키아로 돌아갈 날 만을 꿈꿨다. 그러나 남동생 라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인질로 끌려온 적국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한 두 남매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빼어난 미모와 섬세함이 돋보였던 라두는 사내답지 못한 외모와 성격 때문에 왈라키아에 있을 때도 늘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월등한 누나와 비교당하며 무시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라다는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동생을 늘 보호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라두는 그런 것조차 달갑지 않았다. 라두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인질로 끌려온 오스만 제국에서 라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풍족한 생활, 왈라키아에서처럼 누군가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어쩌나 초조해하지 않고 늘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 라두에게는 너무나 좋아 보였다. 라두는 서서히 적국의 문화와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급기야 적국의 국교인 이슬람교로 개종까지 한다. 엇나가는 두 남매의 운명은 술탄의 셋째 아들, 메메드가 등장하면서 더 멀리 갈라진다.

왕위와는 제법 거리가 있는 셋째로 태어났지만 뜻밖의 사건들로 왕위계승자의 자리에 오른 메메드는 늘 혼자 지내며 외롭게 살아온 반항적인 아이였다. 갑자기 거대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될 운명을 맞은 메메드와 만난 순간, 라다는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끼고 당황하지만 왈라키아를 재건하고 복수하겠다는 목표는 잊지 않는다. 라두 역시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메메드에게 그 선을 넘은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세 사람은 치명적인 삼각관계에 빠진다. 라다는 가장 뛰어난 전사가 되기 위해 피땀 흘린 시간을 보내며 복수의 칼을 갈아온 나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집’이라 생각하기 시작한 적국과 싸우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은 물론 동생의 애뜻한 사랑까지 무시하고 망가뜨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잔혹한 복수, 가슴을 찢는 사랑,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너무도 다른 종교의 갈등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세 사람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다.

2권 『AND I RISE』와 3권 『AND I BURN』은 각각 1년 간격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커스텐 화이트(Kiersten White)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Paranormalcy』 3부작을 쓴 작가로, 그 외에도 『Mind Games』와 『Perfect Lies』, 『The Chaos of Stars』, 『Illusions of Fate』 등을 발표했다.

제목 : FIVE ELEMENTS SERIES

가제 : 다섯 가지 원소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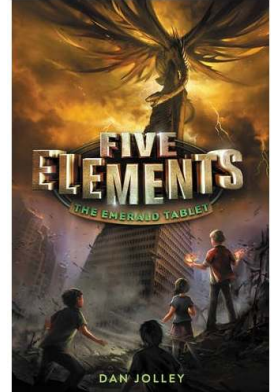
저자 : Dan Jolley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6년 10월 18일(1권)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오직 네 명의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상 아카디아와 괴상한 존재들, 3부작 SF 시리즈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던 이 세상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세상이 또 있다면? 두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집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웅대한 목표만을 꿈꾸며 계획을 꾸미고 있다. 열두 살짜리 주인공인 게이브는 어느 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생김새도, 인종도 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원소의 비밀을 풀기 위해 나선다. 3부작으로 완성될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에메랄드 태블릿(THE EMERALD TABLET)>에서는 갑자기 홀로 남게 된 게이브가 사악한 계락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터널 다운’이라는 무시무시한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되고 친구들과 모험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2년이라는 짧은 인생 동안 무려 여섯 번이나 이사를 다닌 게이브는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준 삼촌으로부터 또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에서 일곱 개나 되는 도시를 옮겨가며 살았는데,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친구든 학교든 다 새로 적응해야 하다니... 이번 이사가 유난히 속상한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에 와서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진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인 카즈, 라틴계 쌍둥이인 브렛과 릴리, 그리고 백인인 자신까지 네 사람은 처음부터 친형제들처럼 가까워져 뭐든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제 겨우 재미나게 사나, 했더니 또 이사를 간다는 것이다! 게이브와 친구들은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현장탐사’를 벌이기로 계획한다. 귀신이나 쥐떼가 쏟아져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지하 공간에 다 같이 들어가보고 넷이서 잊지 못할 마지막 추억을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이 모험의 시작은 온갖 지도와 요상한 물건들로 가득한 데이브 삼촌의 방에서 시작됐다. 대학 교수인 삼촌이 집 안에 마련한 연구실 안에는 게이브와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어디를 나타낸 것인지 알아보기 힘든 지도들, 박물관에 걸려 있을 법한 두루마리 문서, 상형문자가 빼곡하게 새겨진 녹색의 책까지. 그런데 삼촌이 이사를 선언한 후, 문 잠그는 걸 깜박하고 외출한 삼촌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간 네 친구의 눈에 샌프란시스코의 지하 터널 지도가 들어왔다. 평소에도 챔플레인 호수에 사는 괴물이나 베니스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귀신이 사는 섬이 있다는 이야기며 파리 전체에 옛 지하묘지에서 나온 유령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에 심취해 있던 브렛은 이 지도를 보자마자 넷이 함께 가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 그저 마지막 장난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 모험은, 게이브와 친구들을 엄청난 비밀 앞으로 데리

고 갔다.

불, 공기, 물, 땅,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마법’, 다섯 가지 원소로 세상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

컴컴한 지하 공간에서, 네 사람은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시작한 무모한 모험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힘을 깨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본능과 분노를 의미하는 ‘불’, 마음과 연결된 ‘공기’, 물래 스며들어 교활하게 해치우는 일들과 관련된 ‘물’, 느리지만 단단한 ‘땅’, 이 네 가지는 네 사람 앞에 꼬리를 물고 터지기 시작한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힘을 선사한다.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어 기뻐한 것도 잠시,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이삿짐을 챙기고 있던 데이브 삼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게이브는 삼촌이 없어진 후에야, 삼촌이 여태까지 그토록 많은 도시를 전전하고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고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게 했던 이유를 깨닫는다. 바로 ‘이터널 다운’이라는 이상한 집단 때문이었다. 100여 년 전부터 게이브의 가족들은 어둠의 세상, ‘아카디아’와 지금의 세상을 하나로 합치려는 무자비한 이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삼촌은 게이브 역시 그 희생양이 될 것을 두려워하며 조카를 최대한 보호하려 한 것이다. 이제는 게이브가 나설 차례다. 이들이 쫓고 있는 ‘에메랄드 태블릿’을 지키고, 다섯 번째 원소, 죽음을 의미하는 ‘마법’의 원천을 찾아 사악하고 괴기한 존재들과 흑마술이 가득한 아카디아가 이 세상을 덮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시리즈 2권 <그림자 도시(THE SHADOW CITY)>에서는 이터널 다운이 그림자로 가득한 도시 아카디아와 현실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 더 과감한 행보를 시작하고, 게이브는 데이브 삼촌과 엄마가 바로 그 암흑의 도시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상 속이나 존재할 법한 꿈쩍한 존재가 나타나 게이브와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급기야 친형제처럼 돈독했던 네 사람의 우정까지 한 명의 배신으로 흔들리고 만다.

오싹한 옛 설화를 마법이 등장하는 현대적인 모험 소설과 결합하고 어린 10대 아이들의 코드에 딱 맞는 개구쟁이 같은 유머까지 녹여낸 흥미진진한 시리즈다. 탄탄하게 짜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뜻 밖의 비밀과 아이들의 마음에 와 닿을 만한 등장인물들의 심적 갈등,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더해져 긴장감과 읽는 재미를 더한다.

<저자 소개>

댄 졸리(Dan Jolley)는 소설과 만화책 작가이자 비디오게임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공상과학 3부작 소설 『Alex Unlimited』로 데뷔했다. 2016년에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3부작 『Gray Widow Trilogy』와 함께 『다섯 개의 원소(Five Elements)』 시리즈 첫 권을 발표했다.